

'봉사활동 조작' 장현수, 태극마크 영구 박탈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 제출한 장현수가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국가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장현수에게 엄벌을 내렸다. 스포츠동아DB

‘국대 퇴출’ 장현수, 사면도 없다

대표팀 명예 실추 벌금 3000만원까지 협회, 여론 악화 부담...중징계 본보기 사면도 부정적...벤투 감독 "결과 존중"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축구대표팀 장현수(27·FC도쿄)에게 대한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개인 벌금 최고액인 3000만원을 부과했다.

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를 열어 장현수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두 시간여 회의를 마친 서창희 위원장은 "국가대표 자격 제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협회 국가대표 관리규정에 의거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벌금은 명예실추 행위에 근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협회 임직원들이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정도로 징계 수위가 높았다.

2015년 7월 개정된 병역법상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기초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간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여기서 조작이 있었다.

2014인천아시아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은 장현수가 제출한 196시간 봉사활동 증빙서류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다. 폭설이 내린 날, 말쑥한 그라운드에서 모교 후배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장현수는 "제출서류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병역법에 의거, 장현수의 복무 기간을 5일 연장하면서 타 종목 선수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여론이 악화되자 협회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었다. 협회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협회와 축구단체, 국가대표팀 또는 축구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선수에게 벌금, 출전정지 및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제명 등을 부과할 수 있다.

2007년 아시안게임에서 음주파문을 일으킨 이은재, 우성용, 김상식, 이동국에게 협회는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및 협회주관

대회 출전정지 2~3년, 사회봉사 40~80시간'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장현수는 일본 J리그에서 뛰고 있어 일정 기간 협회주관대회 출전정지를 처분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장현수의 사면조치는 가능한 것일까. 현재로서 상황은 부정적이다. 관련 규정이 없다. 서 위원장은 "제명과 관련해 '7년 이상 경과 후 (사면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국가대표 선발 자격에 대한 사면 내용은 없다. 공정위는 (장현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협회는 장현수를 주력 자원으로 활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A대표팀 파울루 벤투(40·포르투갈) 감독을 포함한 코칭스태프를 위해 별도의 브리핑을 진행했다. 모국과는 전혀 다른 병역에 대한 한국 정서에 상당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협회가 내린 조치들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 김판관 위원장은 "외국 감독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문제를 이해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장현수의 일벌백계는 당연한 결과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의 의미는 광범위하다. 경기장 안의 신체 행위와 그걸 보는 관전 문화에 국한된 게 아니다. 선의의 경쟁과 협력, 공동의 목표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규칙과 약속, 관용, 배려, 책임 등 사회 구성원이 가져야 할 덕목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스포츠의 영역이다. 또 정치와 사회, 경제, 외교 등에서도 갈수록 중요해지는 게 스포츠의 역할이다.

영역과 역할의 확대와 함께 스포츠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단순히 운동만 하는 선수나 지도자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부상했다. 따라서

스포츠인의 언행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다.

그들이 보여주는 도전과 용기, 공정성, 시민정신 등은 순기능을 한다. 반면 그들의 일탈행동, 즉 속임수나 반칙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기장 폭력이나 불법도박, 승부조작 행위가 주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이런 나쁜 행동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아시안게임을 통해 드러난 사회현상도 스포츠의 가치와 직결된다. 일부 종목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높아 개인 아닌 한국축구 신뢰와 직결

의 국가대표선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한 팬들의 요구는 우리 사회의 눈높이를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축구에서 불거진 문제도 그 정도가 심각하다. 축구대표 선수 한명의 일탈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오는 지를 일깨워줬다.

장현수 사태의 전말은 이렇다. 그는 2014인천아시아게임 남자축구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특례 대상이 됐다. 그 대상자는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증빙 서류를 조작

하다가 발각됐다.

서류 조작은 범법 행위다. 특히 태극마크를 단 태극전사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병역특례라는 남들이 누리지 못한 혜택을 누렸던 더 겸손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준 배려에 감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배신했다. 사회적인 공분은 당연했다.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태극전사가 가져야 할 품위를 잃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대우를 해주 필요가 없었다.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는 대표선수들의 행동요령이 담겨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제6조 성실의무 및 품

위유지), 품위유지 및 사회적 책임감, 도덕성 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제14조 선수의 의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도록 했다(제17조 징계 및 결격사유). 장현수는 이에 해당된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예상과 달리 수위가 높은 징계다. 장현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의 신뢰와도 직결됐기 때문에 공정위원회의 판단도 일벌백계를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충분히 공감이 간다. 조작과 거짓말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게 이번 장현수 사태가 남긴 교훈이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체육학 박사

멀티골 폭발...손흥민의 진짜 시즌은 지금부터다

리그컵 웨스트햄 상대 시즌 1·2호골 기다려준 포체티노 감독 배려에 보답



손흥민(토트넘)이 마침내 올 시즌 처음으로 골 맛을 봤다. 1일(한국시간) 웨스트햄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두 번째 골 직후 밝은 표정으로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손흥민. 런던 | AP뉴시스

오랜 침묵을 털어냈다. 손흥민(26·토트넘 핫스퍼)이 초록 그라운드에서 포효했다. 손흥민은 1일(한국시간) 런던스타디움에서 끝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18~2019 카라바오컵(리그 컵) 16강전에서 멀티골을 작렬하며 팀의 3-1 패승을 진두지휘했다. 토트넘 입단 이후 150번째 공식 경기에서 터진 시즌 1·2호 골.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 모든 대회를 통틀어 올 시즌 개막 10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부담을 털어냈다. 토트넘은 대회 8강에서 '숙적' 아스널과 북런던 дер비를 펼친다.

●단짝의 패스+환상 킥의 하모니

손흥민이 오랜 침묵을 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절친 파트너' 델레 알리(22·잉글랜드)가 있었다. 엄청나게 많이 뛰면서도 정확한 패싱 능력을 갖춘 알리는 정확한 위치 선정과 공간 침투에 능한 손흥민과 찰떡궁합을 이룬다.

웨스트햄 원정에서 오른쪽 윙 포워드로 선발 출격한 손흥민은 언제처럼 좌우를 가리지 않고 측면을 깊숙이 파고들면서 찬

스를 노렸다. 알리의 볼 배급에 맞춰 간헐적으로 라인을 따라 침투하는 특유의 기동력에 상대 수비진은 허물어지기 일쑤였다.

이날 터진 두 골이 전부 알리로부터 시작됐다. 전반 16분 알리의 패스가 수비수를 맞고 굴절된 것을 그대로 원발 슈트로 연결, 골 망을 갈랐다. 후반 9분 터진 추가 골 역시 알리의 패스가 결정적이었다. 다시 수비 맞고 흐른 볼을 손흥민이 잡은 뒤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골네트를 흔들었다.

치명적인 햄스트링 부상으로 긴 재할을 거친 알리의 복귀와 함께 손흥민의 득점 감

각까지 동시에 터지면서 토트넘의 전방 운용은 솜똥이 트이게 됐다.

●벤치의 배려 그리고 신뢰

손흥민의 득점에 마무리시요 포체티노(46·아르헨티나) 감독도 활짝 웃었다. 달려온 제자를 꼭 끌어안고 한참 포옹을 해준 그는 경기 후 "공격수에게 골은 굉장히 중요하다. 프로다운 노력과 강한 의지를 보인 손흥민이 보상을 받아 나 또한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손흥민은 사실 새 시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2018러시아월드컵에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AG)까지 출전하면서 프리시즌을 거의 소화할 수 없었다. 당연히 컨디션 조절이 어려웠고, 체력 관리가 힘들었다. 어느 때보다 혹독한 여름이었고, 혹사 논란까지 일었다.

선수 하나하나가 아쉬운 입장. 그럼에도 포체티노 감독은 묵묵히 기다려줬다. 가능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 선수 본인은 부족함을 느꼈을지언정, 연말 살인스케줄을 고려할 때 회복이 급선무였다. 손흥민도 불행 없이 스승을 믿고 따랐다. 그리고 결국 터졌다. 현지 언론들도 호평 일색이다. 자신감과 감각을 끌어올린 손흥민의 진짜 시즌은 지금부터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늘 연습한대로 골...난 아직 부족한 선수"

'겸손한 굿맨' 손흥민

"골이 전부 아니지만 기대 부응군 기부? 좋은 일 더 많이 할 것"

모처럼 손흥민(26·토트넘 핫스퍼)이 폭발했다.

손흥민은 1일(한국시간) 런던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18~2019 잉글리시 카라바오컵(리그 컵) 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쳐 소속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올 시즌 긴 침묵을 깬지만 본인은 "아직 부족한 선수"라고 자세를 낮쳤다.

-오랜만에 골이 터졌다.

"대개는 기분이 똑같다. 이긴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런던 터버라 모두가 중요하다고 여긴 승부였다. 우리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이겼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동안 골이 터지지 않아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항상 얘기하지만 축구는 골이 전부 아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가 크기에 더욱 신경 쓸 부분이지 않다. 부담이기보다는 그저 열심히 준비하고 할 일을 잘 하면 찬스는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늘 연습한

대로 득점이 나왔다."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결정했는데.

"휴식이지만 경기를 안 뛰고 싶은 선수가 어디 있나? (포체티노) 감독님의 배려일 수 있으나 (기분은) 좀 그랬다. 다만 팀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감독님은 항상 11명을 선택해야하고 3명의 교체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

-웨스트햄전 득점으로 감독의 배려에 보답했다고 보나.

"아니다. 늘 부족하다. 이 정도로 선물을 전부 채웠다고 볼 수 없다. 내 자신도 만족할 수 없다. 더욱 큰 선물을 안기고 싶다."

-아스널 원정으로 다음 라운드를 펼친다.

"어느 팀이든 이겨야 한다. 상대가 누구든지 오직 우리는 승리만을 갈구한다. 아스널 원정에서 승리해 팬들과 함께 환호했으면 한다."

-지난 8월 한국 육군에 1억 원을 기부했고, 그 소식이 최근에서야 알려졌다.

"뉴스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내 입장에서는 말하기 조심스럽다. 오히려 창피하다. 앞으로도 좋은 일을 더욱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